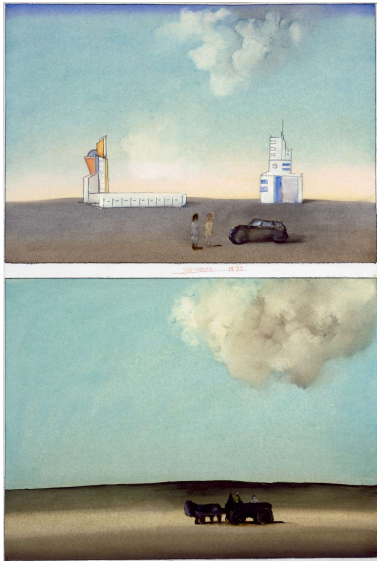


Saul Steinberg

March 31 – April 29, 2023
3F, Pace Gallery Seoul

Opening Reception: March 30, 5–7 PM



Saul Steinberg, *Abidjan*, 1973 © Saul Steinberg Foundation /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courtesy Pace Gallery

페이스갤러리 서울은 **사울 스타인버그**(b. 1914, d. 1999)의 개인전을 2023년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개최한다. 드로잉, 수채화 조각 작품을 한데 모은 이번 전시는 혼란스럽던 전후 시기를 이해해 보고자 했던 한 예술가의 저항적 유머, 호기심, 모더니스트적인 태도를 조명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이민자이자 뉴요커, 그리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세계 곳곳을 여행했던 작가의 경험이 빚어낸 현실 세계와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매우 독창적인 그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루마니아 태생의 스타인버그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1942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당시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의 예술가들과 함께 1940-50년대 미국 모더니즘(American Modernism)의 움직임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추상표현주의 예술가 헤다 스텐(Hedda Sterne)과의 결혼 후 뉴욕의 선구적인 예술가들과도 활발히 교류하게 된다. 뉴욕의 아방가르드 그룹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그는 독창적인 드로잉, 판화, 회화, 콜라주, 조각 작품들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다양한 예술 형식을 자유롭게 오가며 특유의 지성이 드러나는 그의 작업은 하나의 의미로 쉽게 정의하거나 분류할 수 없다.

한편, 스타인버그는 더 뉴요커(*The New Yorker*) 잡지에 실린 드로잉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그중 그의 가장 유명한 작업은 1976년 3월 호의 커버를 장식한 <View of the World from 9th Avenue>로, 뉴욕을 허드슨강과 태평양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여 있는 작은 땅으로 묘사하여 뉴요커들이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사고 방식을 재치 있게 표현한 작품이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결점들을 유머러스하지만 날카롭게 드러내는 것을 즐겼다.

큐비즘과 미래주의, 초현실주의의 미학과 교류하며 영향을 주고받은 스타인버그의 작업은 시각적, 철학적 역설을 탐구하는 동시에 당대 문화와 사회에 대한 간접적인 논평을 제시한다. 이번 서울 전시에 포함된 드로잉 작업 <Abidjan> (1973), <Cairo> (1974), 그리고 <Nebraska> (1966)는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 일상과 사회 규범의 근간을 이루는 부조리와 모순을 다룬다.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또한 그의 작업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 <The American Corrida> (c. 1981)는 미국 국가를 의인화한 캐릭터 영클 샘(Uncle Sam)과 미국 원주민 전통 의상을 입은 인물 사이의 결투를 그린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구경꾼 가운데에는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머리 독수리,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이 묘사되어 있다.

드로잉 작업과 함께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까지 자주 소개된 바 없는 스타인버그의 테이블 조각 작품 2 점을 선보인다. 목재 테이블 위 다양한 재료를 콜라주한 <Summer Table> (1981)에서 작가는 눈속임을 통해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기법인 트롬프뢰유(trompe l'oeil)의 역사를 다루고, 일상 사물의 시적 가능성에 대한 그의 오랜 관심을 보여준다. 붓이나 드로잉복과 같이 실제 작업대에 놓여있을 법한 오브제들, 혹은 집안 여기저기에 있을만한 평범한 사물들이 그의 조각적 탐구의 대상이었다. 전시에 포함된 또 다른 조각 작품 <U. S. Post Office> (1984)는 우체국 공간을 나무 재단 위에 3 차원적으로 연출한 작업이다. 평범하고 관료적으로 보이던 우체국이라는 구조는 스타인버그의 손을 거치며 뭉치 모를 기발함을 품기는 초현실적인 장소가 된다. 이처럼 장난기 넘치면서도 복잡한 구조를 가진 스타인버그의 조각은 소위 고급 예술(high-art)과 일상 사이의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포착한 초상과도 같다.

사울 스타인버그 (b. 1914, d. 1999) 인간 본성에 대한 강렬한 탐구를 보여주는 그림, 조각, 사진, 벽화, 콜라주 작업을 전개해왔다. 다다, 초현실주의, 입체파, 팝아트의 영향을 받은 그의 작품은 혼란스러운 전후 시기를 이해하려는 예술가의 반항적인 유머, 호기심과 모더니스트로서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스타인버그는 뒤틀린 유머, 경쾌한 선의 사용, 사회-정치적 시스템에 대한 자전적 탐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예술은 각각의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관찰하고 묘사하는 매개체와 같다.

페이스는 동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미술 갤러리로 가장 영향력 있는 현대 예술가들과 더불어 알렉산더 칼더, 장 뒤뷔페, 바바라 헵워스, 아그네스 마틴, 루이스 네벨슨, 마크 로스코 유족 및 재단과도 수십 년 간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페이스는 설립 초기부터 추상 표현주의와 빛과 공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독보적인 갤러리로 자리매김했다.

1960년 아네 글림처(Arne Glimcher)가 설립한 이래로 예술가를 가장 우선으로 하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갤러리로 발전해 왔다. 현 마크 글림처(Marc Glimcher) 회장이 이끄는 페이스는 지속적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독창적인 작업을 전시, 프로젝트, 공공 설치, 기관 간 협력, 큐레이토리얼 연구와 500여 권에 이르는 출판물 등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목소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또한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지원하는 갤러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web3 활동을 위한 Pace Verso를 출시했다.

현재 페이스는 뉴욕 첼시 25가에 위치한 두 개의 갤러리(2400여평의 전시공간과 새로 오픈한 7층 규모의 건물)를 포함해 런던, 홍콩, 서울, 제네바, 이스트 햄튼, 팜 비치, 로스앤젤레스까지 전 세계 8곳의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는 아시아에 최초로 진출한 국제적 갤러리로서, 베이징에 사무실과 뷰잉룸 뿐만 아니라 홍콩과 서울에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이스트 햄튼과 팜 비치에 시즌별 기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Press Inquiries

Kyungmi Kim
Public Relations Associate
kkim@pacegallery.com
+82 070 7708 7755

Follow Pace 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
 @pacegallery